

세계목공예품의 용도별 분류

김사익 · 김동귀
(국립진주산업대학교 인테리어재료공학과 교수)

1. 서 론

1-1 연구목적

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수목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목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. 목재는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었고, 그 시대성을 반영함으로써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.(woodtech, 2005) 최근 모 백화점에서 “퓨전 제사상 차림 시연회”를 열어 전통적인 제사상에 쓰이는 목기대신 신세대가 선호하는 백색 도자기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.(농아일보, 2006) 이는 신세대들에게 목재의 장점과 목재의 주요 용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한 우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.

본 연구는 가장 대중적인 목공예품 중에서 용도별로 분류하여 각국 나라의 목재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.

2. 재료 및 방법

2-1 공시재료

공시재료는 연구진들이 해외 연수·출장 및 국내 기획 상품전 등에서 수집한 목공예품 약 800여종을 공시재료로 하였다.

2-2 측정방법

각 재료의 수종판정은 원색 세계목재도감(조재명, 1993)을 바탕으로 연구진과 전문가들의 육안적 방업에 의하여 실시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3-1 조각류

음악과 흥이 있는 아프리카인들은 재즈음악의 효시가 되었을 정도로 늘 음악과 함께 생활을

하기에 전통악기류의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. 탄자니아의 수공품의 특징은 그 재질에 있다. 지구 상에서 가장 단단하며 물에 가라앉는 나무인 흑단 (ebony)을 주재료로 사용하는데 만들기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부적인 묘사나 채색은 없지만 그 중후함과 튼튼함은 아프리카 수공품 중에서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. 마콘데(makonde- 부족이름이기도 하다.) 조각이라는 아주 특이한 공예품이 있는데, 지름 20cm정도 된 나무에 그들 조상들의 삶·역사를 이 나무에 빼곡히 조각하는 것인데 그 정교함은 가히 탄자니아 공예품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. 또한 아프리카인들의 독특한 구강학적 및 신체적 조각품이 돋보였다.(아프리카박물관, 2005)

3-2 완구류

완구재는 목재가 사용 부주의로 인해 쉽게 부서질 수 있는 특성상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.

3-3 보석상자 및 상자류

보석상자는 귀금속 및 장신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. 특히 포도주 상자 등이 고급스럽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3-4 주방 및 식탁용품

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부분이 의식주와 관련해 볼 때 주방 및 식탁용품이다. 이 용품들은 물을 사용하는 곳에 쓰이기보다는 마른 것을 담는 용도로 많이 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.

3-5 문구류

문구류에는 펜꽃이, 메모함, 연필꽃이, 연필통, paper knife 및 명함집 등 성인을 위한 사무용품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

3-6 운동구류

운동구는 부메랑, 탁구라켓, 야구방망이, 골프채의 헤드 및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한 장식용 축구공 등이 많이 제작 되었다.

3-7 염색목 및 목재채색

목공예품의 새로운 장르로서 기대되는 분야가 염색목 및 목재채색으로 판단된다. 여기에 목재의 각기 다른 재색을 이용한 단판을 사용하여 만든 모자이크 또한 자연의 조화로움을 실내공간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. 이 부분은 소경목으로도 얼마든지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. 밋밋한 목재의 재색에 본인이 희망하는 그림을 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학생들에게도 권해 볼 만한 장르라 생각된다.

4. 결 론

연구진들이 해외연수·출장 및 국내 기획상품 전시회 등에서 수집한 800여종의 목공예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공예품을 분류하였다. 분류된 장르는 조각재, 완구류, 보석상자 및 상자, 주방용품 및 식탁용품, 문구류, 운동구, 염색목 및 목재채색 등으로 분류하였다. 분류된 장르별로 어떤 수종들이 많이 이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. 분석된 결과는 결과 및 고찰에 서술하였다. 가장 눈길을 끄는 수종은 myrtle wood이다. 이 수종은 남부 오리건과 북부 캘리포니아의 해안을 따라 서식하는 수종인데 재색이 짙은 갈색에서 은회색, 빨강 심지어는 노란색을 띄기도 하는 아름다운 문양과 목리를 가진 수종이다. 이 수종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재색을 가진 활엽수종의 하나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.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수종의 활약이 기대된다.

5. 참고문헌

1. 김사익. 2004. 한국목재신문(2004.12.16제118호)
2. 동양일보. 2006.1.19. 동아경제
3. 아프리카박물관. 2004.1. (주)삼호칼라
4. 조재명. 1993. 원색세계목재도감. 선진문화사